

매독 가지고 태어난 아이 10년 동안 11배 증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가 급증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선천성 매독에 걸린 아기가 급격히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뉴시스'가 영국 가디언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미국에서 3,761명의 아기가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2012년 기록된 335명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선천성 매독은 임신한 사람이 아이에게 매독을 물려주면서 발생한다. 이 질병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살아남은 영아에게는 여러 선천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 질병은 미국에서 1990년대에 거의 퇴치됐지만, 양질의 산전 관리를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성병에 대한 예방 인프라 및 자금 지원 감소에 더해 가임기 여성의 매독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최근 다시 급증했다고 CDC는 전했다.

CDC 최고의료책임자인 테브라 호리는 "산모와 아기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공중보건시스템, 지역사회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매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임신 중에도 안전하다고 알려진 유일한 매독 치료제인 '바이실린' 부족으로 미국 공중보건당국은 병원들 사이에서 재고를 교환하고 있으며 심지어 치료를 위해 일부 환자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도시 상점 절도 급증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상점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가 미 상크뱅크 형사사법위원회(CCJ)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6% 증가했다.



▲ 절도 방지를 위해 자물쇠가 달린 진열장을 설치한 한 소매점. 사진=EPA연합뉴스

도시별로는 뉴욕의 상점 절도 건수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LA가 61%로 뒤를 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지난해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하면 LA가 가장 상점 절도가 심각한 도시였다. LA의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나 급증했다. 반면 뉴욕은 올

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했다. 조사 대상 주요 도시의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17% 상승했다.

이처럼 상점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매업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근 미국소매협회(NRF)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국 4개 도시에서 지난해 절도로 인한 손실 액수가 1천20억 달러에 달한다

고 발표했다.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의 경우 범죄 증가를 이유로 매장 9곳의 영업을 중단했다. 폐쇄된 매장들은 뉴욕을 포함해 샌프란시스코 등 상점 절도로 인한 손실이 큰 지역에 위치했다.

간호사 인력난에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 의존 심화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 알선 플랫폼 기반으로 교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긱 워크'(gig work·초단기 임시직 노동)로 전환하는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8일 '연합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간호사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 측,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근무 유연성에 끌린 간호사 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이 때문에 환자 치료에 미질 영향도 우려된다.

올해 나온 간호사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간호사 10만명가량이 일을 그만뒀다. 또 61만명 이상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육체적·정신적



▲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간호사. 사진=shutterstock

탈진)이나 은퇴로 인해 2027년까지 일을 그만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노동력 감소에 해당돼 의료 분야에 인력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은 간호사 알선 플랫폼과 협력해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를 총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의 급증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미간호사연합(NNU)의 미셸 머혼은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나 환자가 물려들 때 대응할 현장 간호사가 충분히 있지 않게 된다"며 "간호사가 일터에 익숙하지 않아 구멍 장비의 위치를 모르거나 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